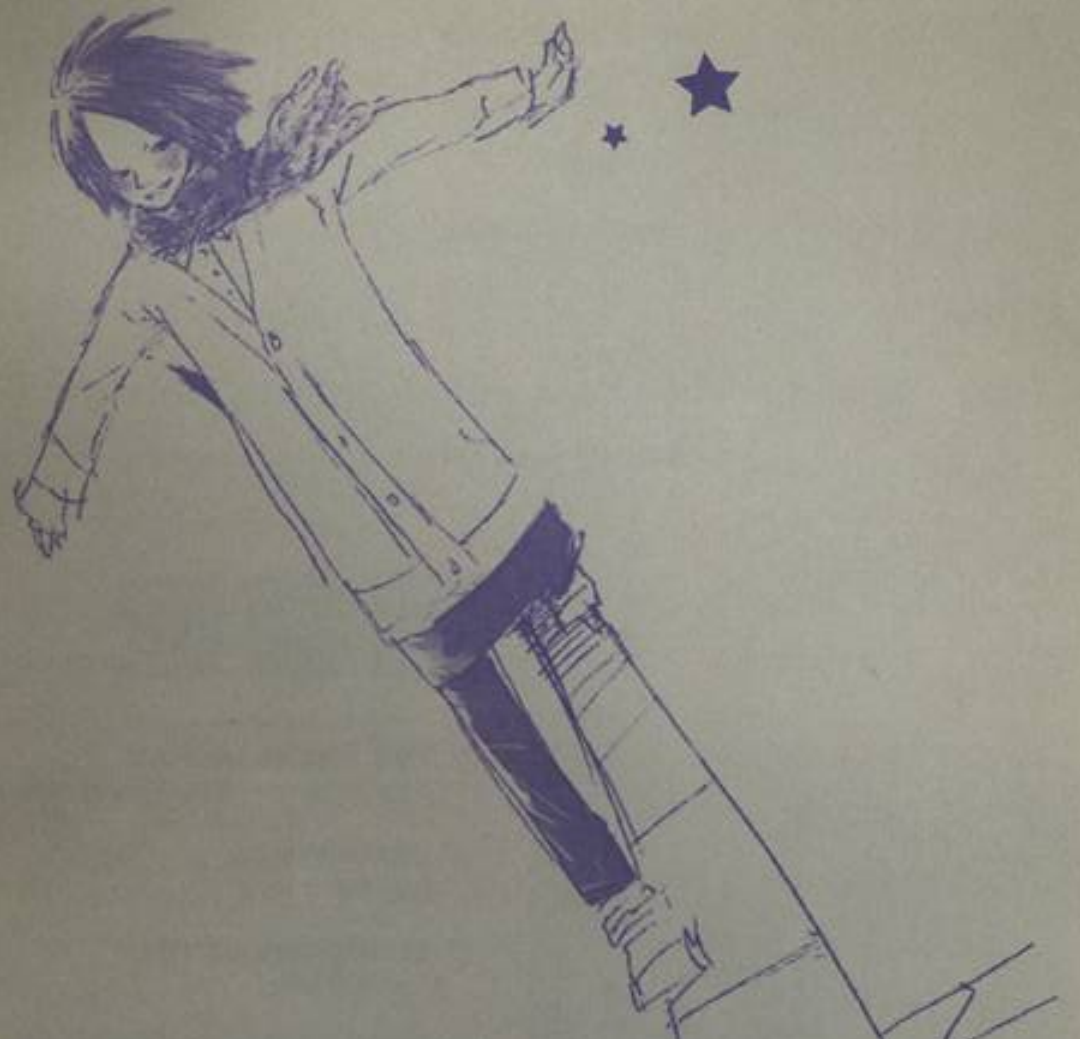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연세대학교 제 16대 총여학생회

happyfem@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She Said

2004. 5호 10월 25일 발행

기획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 몇가지 후기

특집 일상사

여성학 서명 페미니스트 되기, 자기를 대면하기

흐름이 만난 문화 & 문화쟁이 돌고 돌아, 다시, 춤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량의 반성록력 이야기 성매매 없는 세상... 이제 시작

남성이 바라본 세상

하이픈 사회주의, 하이픈 민족주의도 이제 좀 생겨라

CONTENTS



- 01 기획 |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몇가지 후기
여는글 • 1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정리 • 2
하이어나들에 대한 짧은 회고담 • 7
제 7회 여성제 소녀유람 그 이후 • 11
- 13 특집 | 일상사
여는글 • 13
이런 세상 #1 #2: 별로 상관없는 두 개의 이야기 • 14
일상을 까발려라? • 17
학교와 사회 그 중간 나의 지금과 내일 • 19
- 22 여성학 서평
페미니스트 되기: 자기를 대면하기
- 24 흐름이 만난 문화 & 문화쟁이
돌고 돌아 다시 춤



- 26 이갈의 여성주의로 읽는 이야기
여성에 대한 남성 사회의 공포와 판타지(스텝모드 와이프)
- 28 단단의 여성주의 만화
공감 - 연립보러 가는 날
- 30 쌀의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
여성주의자의 졸업
- 32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량의 반성폭력 이야기
성매매 없는 세상... 이제 시작
- 34 뭉이 만담
재고, 재고, 또 재보기
- 36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 39 남성이 바라본 세상
하이픈 사회주의 하이픈 민족주의도 이제 좀 생겨라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기획

행복한 여성주의

...몇가지 후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한숨 돌려보니 어느새 2004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She Said도 이번이 마지막 호로군요. 아직 학기가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정리해보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만, 마지막 She Said이니 만큼, 꼭 이야기 되어야 할 몇 가지 일들의 후기를 이곳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에 관한 글입니다. 학칙 개정 운동의 시작, 1학기의 서명운동 이후 성폭력 대책위에서 학칙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지난 9월의 여성제 이후 한 동안 학교 자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남성들을 위한 발길 예티켓에 대한 사이버 마초들의 반응에 대한 글입니다. 여전히 성찰하지 않는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은 제7회 여성제-소녀유람의 후기입니다. 여성을 약자로 규정짓는 담론에 균열을 내고, 여성의 진보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강연과 행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감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에 관한 글입니다. 학칙 개정 운동의 시작, 1학기의 서명운동 이후 성폭력 대책위에서 학칙 개정이 어떻게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정리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어떻게 시작되었나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이하 학칙)이 해가 지날수록 구성원의 반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음과 학교 행정 체계의 비협조, 그리고 학칙 내용의 문제와 맞물려 제정 당시의 원래 의미를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학칙에 따른다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사건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학내 여성운동단위 내에서는 학칙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미흡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운용하는 (학칙에 따라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수의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2003.5.22.)가 총여학생회 주최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학칙을 통해 교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다시금 인식하게 됨에 따라 학칙 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이는 다른 학교 여운단위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제6회 여성연대판(2003. 8.)에서 각 학교 활동가들이 모여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숍」을 기획하게 된다. 이 기획은 약 50개 대학의 학칙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점들을 구체

적이고도 명확하게 짚어내었고 이는 곧 연세대에서 시작될 학칙 개정 운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의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총여학생회는 2003년 2학기부터 캠퍼스에서 본

격적으로 학칙 개정 관련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대책위에 학칙 개정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2003.9.18.)를 개최하였으며, 학생회 선거 때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각 단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한 선본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 학칙과 대책위 운영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냄으로써 학내에

1) 학칙 내용의 문제와 함께 피해자 보호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실제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한 점, 가해자 징계 규정이 정제되고 할 수 없을 조차 등으로 이루어진 제 체계의 미흡을 가지고 있는 점, 학칙 적용 범위 미흡하여 사건지대로 교육적 배려나 징계는 가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의 문제, 성폭력 상담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다.
2) 본지 내용은 「학칙 전면 개정상의 문제/ 피해자 보호 규정/ 가해자 징계 관련/ 적용 범위/ 학생 위원과 여성위원의 참여/상담소의 구성 및 관련으로 분류한다.

학칙에 따른다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사건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학내 여성운동단위 내에서는 학칙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미흡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운용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없는
비민주적 대책위 운영 규탄한다.
대책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한판 워크숍 결과물과 공청회 결과물을 참고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만든 총여학생회측 개정안을 제출하여, 결국 대책위로부터 학칙개정 소위원회가 꾸려져(2003.12.) 개정 작업을 논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차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처장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음과 독단적인 태도로 인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면서 그만큼 합의하기에 더 민감한 조항들은 삭제된 채 형식적인 회의로 마무리 되고 만다.³ 2004년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총여학생회가 구성되었는데 1차 소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총여학생회는 전년도 같은 소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을 이어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금 새로운 학칙 개정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개괄

2004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새로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학칙 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1월부터 각 단대와 학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학칙 개정 교양을 진행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부장 논의를 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가장 중요한 5가지 사안 중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전면적인 학칙 개정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학칙 개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학칙을 운용하고 학칙 개정 작업을 실제로 논의하는 대책위가 지니고 있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학칙 개정 내용과 더불어 대책위 규탄 내용을 동시에 알려내었다. 당시의 대책위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나 피해자 보호와 같은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의지와 소양이 없는 이들이었고 대책위 테이블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으며, 학칙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회의 진행 원칙들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교수들이 대책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겠지만, 현 연세대 학칙에 명시된 바 대책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당연직 위원들은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장이 임명한 각 실처장이 이미 대책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만한 교수가 대책위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대책위원 선임에 어떠한 선임권 및 의견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위 파행에 가장 큰 원인이자 책임을 지어야 하는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당시 대책위가 얼마나 문제적이지 않은지 끊임없이 알려내었다. 또한 그러한 대책위라면 학칙 개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학생측 개정안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는 요구로 입장을 정리하고, 3월 말 교육부장 사안들을 가지고 본관 점거에 들어갈 때 「반성폭력 학칙 개정- 학생측 개정안 실현!」이라는 요구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

본관 점거 이후 수차례 계속된 교수 학생협의회에서 학칙 개정 사안을 이야기하였으나 대화의 여지 혹은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보이지 않았고, 교수 학생협의회에 참석한 각 주요 실처장들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에 모두 교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기대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교육부장의 다른 사안들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협상이 체결되었고 반성폭력 조항은 취지와 실효성에 맞게 학칙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⁴

3)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대책위의 위원이 어떤 교수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회의의 민주성은 달라질 수도, 전혀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정 요구를 한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학생 관계에 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교수위원은 여초에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기도 한다.
4) 지난 5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됨에 따라 부총장 및 각 실처장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대책위 역시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되었다. 당시의 대책위와 같은 위원들이 교체되기 이전의 대책위를 일컫는 비민주성과 독단으로 일관했던 매우 문제적인 대책위를 지칭한다.
5) 협약한 반성폭력 조항의 전체는 이렇다. 1. 반성폭력 학칙을 그 취지와 실효성에 맞게 개정한다. 2. 반성폭력 학칙에 해당자원의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을 마련한다. 3.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정상화한다. 4. 성폭력 대책위원회 교수 위원 선정 시 학생참여를 보장한다. 5. 여학생처 산하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를 독립시킨다.

상수정 없는
대책위 운영 규탄한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진행상황과 성과

5월 초 협약서가 도출되고 이어 신입 총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되어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될 때 그 동안의 운동의 첫 번째 성과가 가시화되었는데, 그것은 대책위의 일반 교수 위원 선임 시 학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협약의 결과였다. 대책위의 당연직 교수 위원들이 특정 처장들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일반 교수 위원만이라도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가진 교수들을 선임하기 위하여 걸었던 요구였는데, 이것이 약속됨에 따라 총여학생회가 추천한 교수 중 1인이 대책위 일반 교수 위원에 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⁹⁾ 이리하여 6월에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첫 번째 정기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학칙 개정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소위원회를 꾸려 7월에 1차 학칙개정 소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새로운 소위원회는 이전의 소위원회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서 민주적인 토론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한 조항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차 소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아 논의가 미뤄진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하여 총여학생회와 교내 성폭력 상담실이 협의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9월 1일에 열린 2차 소위원회에서 마지막 검토 후

학칙 개정안 소위원회 결의 과정을 밟았으며, 10월 5일에 임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 최종 검토를 하였다. 다만 이 회의에서 대책위 구성에 관한 조항¹⁰⁾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이는 교수위원을 제외한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과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는 조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교수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교수·직원·학생의 동등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실질적인 형평성 없음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정될 조항의 정확한 문구는 그 회의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었기에 상담실에서 명문화하여 대책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결의를 받기로 하였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반성폭력 학칙 개정 작업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기에 이를 것이다.

아직 대책위 최종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된 학칙 전문을 실을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며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덧붙이겠다. <피해자 보호 조항 강화/학칙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성폭력 상담실장의 자격 조건 보완 및 구체화/ 가해자 불출석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심의 조항 추가/ 징계 및 조치 조항 강화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가해자의 사회 봉사 등 추가/ 사건 조사 및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조항 구체화/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 추가/ 대책위 구성에 관한 조항 수정 등>

대책위에서의 논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이 형식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사건 공개를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학칙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수면 위로 드러내어 알려지기 힘들었다. 그 고민은 언제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몇몇 사건 해결 주체의 몫이었고 이를 여문화하기 힘든 것이 학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칙 개정 운동을 하면서 이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알려내어 많은 이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학칙의 내용도 대책위의 구성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방대하고 복잡한 학칙 관련 내용들을 납득할만하게 알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선전의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도 잘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 학칙의 존재는 물론 그 문제점까지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흐름과 쌓아온 내공을 이용하여 새로 구성

9) 교수위원(교수)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의 특성 상 교수의 발언이 다른 위원들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중 여성주의자 교수가 한 사람이라도 포함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난 5월에 대책위원 임기로 인해 새로이 대책위가 구성되었는데 이 때 총여학생회가 추천한 교수 2인이 추가로 선임됨에 따라 대책위 교수위원 3인중 2인이 학생 추천 교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0) 제25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제13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교수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된 대책위에서 학칙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개정 과정에서 학생측의 요구 중 다수의 중요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루어진 반성폭력 학칙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학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들

1. 대책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너무도 가변적인 학칙 적용과 해석

학칙 개정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던 때에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가장 막막하고 회의적이었던 고민은 성폭력 대책위에 관한 것이었다. 학칙 상으로는 신고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대책위인데, 이 대책위가 오히려 학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을 뿐더러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및 조치들을 해석하여 사건 해결에 적용할 만한 인식과 능력 및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해 위원회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위원들에 의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의 대책위만 보아도 그 몇몇 위원의 의견이 아무런 절차적인 합의 방식 없이 대책위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위 운영을 감시 및 제재할만한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칙을 아무리 좋게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늘 뒤따랐다.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러한 고민의 연장에서,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심정에서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책위원 특히나 그 중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위원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같은 학칙이라도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칙 개정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대책위(원)이며,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상위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 학칙을 지킨다는 것은

앞서 대책위가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문제 말고도 학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무엇인지 짚어야 할 것이다. 학칙을 지킨다는 것은 대책위의 위상과 상담실(여학생처)의 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무부처간의 복합적인 관계들 속에서 문제가 빚

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책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해도 실제 그 조치는 교무처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많은 경우 교무처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는 교무처장이 대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나 그 사건으로 비롯된 가해자 징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현상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위의 위상 혹은 대책위원장의 의지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강의 평가서'에 교수 성폭력적 발언 유무 관련한 주관식 문항 삽입에 관한 건인데, 이는 분명 대책위의 결의 사항이지만 교무처장의 반대로 1년째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교무처장이 대책위원이 아니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해도, 대책위의 위원장은 부총장이기 때문에 행정상 교무처에 대하여 상위 기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이나 다른 당연직 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무처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결정된 사안이라도 이것이 실행됨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또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들이 이렇게 때문에 교무처는 대책위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쉬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은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다. 학칙에 예방교육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조항을 강화하기도 하였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원 대상에

11) 현재 성폭력 상담실은 여학생처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존재한다.

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무처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교내 성폭력상담실에서 여학생처 명의로 협조 요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유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고 자신들의 업무가 많아 예방교육에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처와 상담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학칙대로 행하려 하여도 행정적 절차와 힘의 우위 관계 안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칙을 개정하는 것과 학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이러한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고민들..

1. 학칙의 운용에 대한 상위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였듯이, 학칙은 그 조항을 만드는 일부러 해석·적용하는일까지 그 주체가 누구이나에 따라 너무나 가변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학칙의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상위기구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라는 상위기구의 감독과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학칙 운용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이 학내의 성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반성폭력 학칙이 그 의미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구의 감독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학칙 개정 운동을 하면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왔고 그러한 성과로 교무 때 '예방 차원의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을 마련한다'는 협약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대학 학칙에도 이 특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남아 있는 숙제이다. 이를 고민하면서 총여학생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료 요청을 하여 외국 대학 학칙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하였다. 이들 학칙에서 교수 성폭력의 정의 및 교수 성폭력의 특징을 고려한 세세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참고할 내용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한국 대학의 학칙 안으로 끌어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활동으로부터 정리된 교수 성폭력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에 보다 적절한 특별 조항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작업을 총여학생회 혼자서 해내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일이었다.

학칙 개정 운동과 함께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 여운단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학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들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 표준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와 여운단위 활동가 등 교수 성폭력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 포함된 연구팀이 교육부 하에 꾸려져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각 학교측에서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를 더 비중 있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본다. 따라서 학칙에 교수 성폭력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길로서 표준안 마련을 제안한다. **See Said**

※ 2003년 현재 문헌 검색에서는 3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었으나 3건 모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나 가해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해결로 마무리되었다. 3건 모두 가해 교수들이 사임한 후임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두었으므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학들은 '잘 해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이에나들에 대한 짧은 회고담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을
물고 늘어지는
“그들”을 회상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생산성이 전혀 없는) 논쟁(?)이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맥락에 대한 고려는 커녕 그 내용 사이에 숨은 행간 및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이 “이 에티켓을 자보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마녀사냥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급급했다는 점이었다.

약 두 주쯤 전인가, 제7회 여성제 “소녀유람- 웃는 여성, 흐르고 넘 치다”를 무사히 마치고 다소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싸이월드 “여자만의 방”에 접속했다가 생긴 일. “여자만의 방” 게시판에서, 행사 기간 중 학생회관 로비 게시판에 부착한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 자보가 사진에 찍혀 온라인을 돌아다니며 극단적으로 회화되고 있다는 후문을 읽었던 것이다.

이제 대체 무슨 일인가. 약간스레 정신도 황망하여 부랴부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뒤졌다. 그 중에는 학교 자유게시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미 사이버 마초들로 인해 초토화가 진행 중이었다. 대체 왜? 이 에티켓의 어떤 것이 그리도 “그들”에게 모욕감과 낭패와 수치스러움과 자존감을 던져주었는가. 평소에는 학교 자유 게시판에 로그인 하지 않다가도 공들여 시간 들여 일일이 답글을 달아준 연세대 학우들의 열띤 성화가 두드러졌던 학교 게시판은 그런 점에서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미친년들이 어쩌구 코메디다 코메디’와 같은 일련의 욕설들과 함께 정성들여 고만하고 전지에 옮겨 쓴 에티켓 전문이 앞뒤 맥락이 삭제 당한 채 영문 없이 회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소란스러워진 머리와 마음을 수습하고 찬찬히 이 사태(?)

를 파악하면서, 비로소 공포감은 재빠르게 걷히기 시작했고 오히려 윤곽을 짐짓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여유(?)마저 생겼다.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을 집하고 게시판에 여러 모로 당산들의 감정을 배설해놓은 이들의 궁극적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지만 거칠게 정리해보면 대강 이런 것 같다. 즉,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 여자들이나 조심해라”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몰지 말라. 기본이 지랄 같다” “그러므로 나의/ 우리의 기본을 x갈게 만든 이 자보를 붙인 이는 당장 사과해야 하며, 이 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이 자보를 붙인 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묶여버리는 한편 이에 보너스로 “역시 이 자보를 붙인 이들/ 군대 안 가는 여자들/ 모 여대 회장/모 청당 여자 대표는 전부 동일하게 재수가 없다”는 (도대체 공통분모는 여자라는 것 말고는 찾을 수 없는 대상들이 한꺼번에 묶이는, 참으로 신기한) 명제가 뿔뿔 나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생산성이 전혀 없는) 논쟁(?)이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맥락에 대한 고려는커녕 그 내용 사이에 숨은 행간 및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이 '이 에티켓을 자보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마녀사냥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급급했다는 점이었다. 정작 에티켓이 문제삼고 있는, "여성들을 위협하는 밤길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점은, 이 에티켓을 둘러싼 소모적인 게시판 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참고를 위하여 에티켓 전문을 실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다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

- 1 밤길에서 나의 존재가 여성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을 자각한다
- 2 밤길에서 여성이 혼자 앞에 가고 있을 때, 걸음을 늦춘다. 걸음을 빨리 하는 경우 위협적일 수 있다.
- 3 술을 마신 후에는 조용히 바로 집으로 간다.
- 4 밤길에 다니는 여성에게 시비걸지 않는다.
- 5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거나 노상 방뇨하지 않는다.
- 6 자기 몸이 남한테 함부로 닿지 않도록 방심으로 조심한다.
- 7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성과 같이 타게 될 경우 여성을 먼저 올라가게 하고 나중에 탄다.
- 8 공용 화장실에서 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간다.
- 9 고장난 가로등은 경찰에 신고한다.
- 10 주변의 남성들에게 앞서 말한 에티켓을 널리 알린다.



나와 여자 친구들의 안전한 밤길 되찾기 매뉴얼

여성들은 자유롭게 밤길을 다닐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현실에서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책임이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자기책임을 필요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우리는 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예방' 책들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로운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일상속의 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 1 평소 주변 경찰서 번호를 알아 두고 핸드폰에 누르기 쉬운 단축 번호로 저장해 두세요.
- 2 지하철에서 위험이 생겼을 때, 문마다 적혀 있는 차량 간 번호와 전화번호를 보고 기관사에게 전화하여 신고하세요.
- 3 밤에 혼자 택시를 탈 때는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택시 번호와 기사 이름의 인상착의/이름 등을 기억해 두고 이를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친구를 택시 태워 보낼 때에는 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 4 밤길을 걷다가 위협을 느꼈을 때, 손에 있는 각종 집기를 이용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해 보세요. (우산, 핸드폰, 스프레이 등등)
- 5 노출증 변태를 만났을 때는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비웃어 주세요. 카메라폰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카메라 폰이 아닐 경우 사냥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 6 여남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바깥문을 잠그고 들어가세요.
- 7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남자와 같이 타게 될 경우 혼자 먼저 올라가겠다고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 버튼 앞에 서서 위협 상황이 되었을 때 '부름' 단추를 누르고, 전 층의 버튼을 모두 누르세요.

(출처-달빛사위 공동준비위원회)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을
물고 늘어지는
"그들"을 회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에티켓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대상인 "누군가"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분이 나쁜가. 그 원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대학밖이나 들어와서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논리정연하게는 아니더라도 말이 되게 정리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신입생 때 "글쓰기"라는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자들은 이런 에티켓 쓰지 말고 집에나 일찍 들어가라는 요지의 글들은 별로 고려할 여지조차 없으므로 생략한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 즉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로 몰지 말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남성에게도 밤길이 두렵고, 더더욱 여성에게 밤길이 위험할 수 있음을 신문지상에서 "들어보기도 했다"면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범죄자들 및 그들을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이 사회에 같이 화살을 돌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당신들이나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함과 자기 안위가 다른 이들의 피해와 맞물려 얼마나 극도로 역겹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어쩌랴? 혹시 이런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밤길을 다니면서 방심하고 있다가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혹은 어느 방향으로든 예측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남성 가해자들에게 한 두번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여성들은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가 독심술, 천리안 및 예지력과 같은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뒤에

서 남성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게 무서울 수밖에 없고, 늦은 밤에 엘리베이터 같이 탈출구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남성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레 위협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또한 유명철 같은 "못 남성과는 다르"다고 주장되는 가해자 역시 지극히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신장에 평범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던가.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밤길 폭력을 비롯한 폭력적 상황들은 다분히 일상적이다.

"남성들을 위한 에티켓"에 자동적으로 광분하는 이들이 이를 닮고 부모님께 안부인사를 하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여성들은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현관문까지 가는 동안 어떤 놈이 내 길을 막을 것인가, 오늘 전철 안에서는 성추행 없이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오늘 아버지는 나에게 "왜 일찍 안 다니냐"며 잔소리를 또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은
제한된 공간을 뚫고 나와 밤길을 되찾으면서
여성들이 “당신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라”며
그녀들이 평생동안 듣고 살았던 말을
거꾸로 뒤집어 던져 준 것이다.

얼마나 해대실까 일상적으로 고민한다.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금까지 밤먹듯 들어오고 보아오고 경험한 것이 그것이어서, 어떤 경우 매사에 공포감을 학습하며 다니게 되기도 한다. 아마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통금은 10시까지다 무심히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두지 않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학습된 공포감”이 무엇인지 그저 먹먹하기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포감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기나 적어도 주변에 그러한 공포감 생성에 일조하는 이들이 있으면 존엄히 꾸중할 일이다.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항상 공포감에만 휩싸이기 보다 나 자신을 위협하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야단을 쳐서 그들이 한번쯤 왜일까 생각해볼게 만드는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지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에티켓이다.

언제나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권력의 땅에서 자유로이 헤엄치며 타자들

에게 합심하여 제한된 공간(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confinement에 가까운)을 웃으며 강요한다.(여기서 “제한된 공간”이란 무슨 독방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발 상상력을 가지고 단어와 행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1분이라도 고민할지이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이 자신에게 허여된 공간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쉬쉬하고 살아왔던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면, 저항 공간을 생성하며 빈틈을 내기 위한 목소리가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귀차니스트로서의 미덕을 마음껏 발휘하며 맘 편히 살아온 이들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선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당연히 기대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번도 침범 당하지 않았던, 언제나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누구도 자신의 안위에 거스르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그러한 편안함을 타자의 희생 위에서 작동시킬 수 있었던 그런 역사와 일상에 균열이 나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은 제한된 공간을 뚫고 나와 밤길을 되찾으면서 여성들이 “당신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라”며 그녀들이 평생동안 듣고 살았던 말을 거꾸로 뒤집어 던져 준 것이다. “그들”에게 집에서만 갇혀 살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것도 아니었으며, 모든 남성을 싸잡아 범죄자로 호명하기 위함도 아니다. 어떤 면에서 사소하지만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닌 10개 남짓한 항목은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속박하고 있던 것들을 온전히 녹여낸, 일종의 패러디라고 볼러도 좋을, 그러나 매우 절실한 문구들이다.

그래서 “단지 기분이 나빠서” 익명 뒤에 숨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배설하고, 권위있는 지식인인 척 하며 여성들을 싸잡아 깨수 없다고 하거나, 혹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들만의 기준”을 선정하여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를 구별하여 상과 벌을 주는 그들, 그들에게서 패지어 물려다니면서 눈치만을 보며 비열하게 공격하는 하이에나를 본다. 그런 하이에나들이 그들의 먹잇감 앞에서 선심 쓰듯 “해명해보라”라고 말한다. 누가 누구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과연 이 순간 권력을 가진 자는 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채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의 맥락 파악 없이 답답의 흐름에 휩쓸려 쫓대 없는 단어들을 배설하는 “당신”, 창피한 줄 알아라. **She said**

by 고훈

I NEVER FEEL SORRY FOR WHAT ME DONE

제 7회 여성제 笑女流濫 | 소녀유람

그
이
후



강연 중 선생님께서 던진 한마디,
“여성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가!”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쳐오는 나를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아니,
아직까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笑女流濫 | 소·녀·유·람 웃는 여성, 흐르고 넘치다

지난 여성제 기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단으로서, 여성제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느낌 하나 하나를 되새겨본다. 특히나 이번 여성제 기간을 통해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무엇을 환기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건데, 그것은 여성제 행사 내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여성, 더 이상 약자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절실함이 행사 전반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나 첫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강연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겨움만 늘어가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

강연 중 선생님께서 던진 한마디, “여성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가!”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쳐오는 나를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아니, 아직까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당연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현실을 살아가야만 한하는 것이 여성이다.)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놓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던 탓인지, 나는 한번도 여성인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 스스로 자신을 약자로 위치시키는 것은 개인의 일상적 체험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담론에 의한 선형적인 것에 의해 구조화 된다. (여성이 갖는 공포에 대해서 감정 이입이 되지 않는 감수성 부족한 자를 위해, 일상에서 공포가 어떻게 학습되고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영화 <불링포플럼마인>을 한번 떠올려 보라. 어딜가든 끊임없이 몸 조심할 것을 주지시키는 환경 속, 그 누가, 어떻게 자유를 말할 수 있었는가? 여성에 관한 그 수많은 “허튼 소리”가 들끓는 여기서 말이다.)

사실 이제까지 나 역시 그런 허튼 소리들에 압도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었다. 즉, 여성인 나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탓에 질려 번번히 탈출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



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너 스스로에 대해 다시 질문해보라는 말을 듣게된 것이다.

여성은 약하기만 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그것에 관련한 너무 쉽게,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을 하게 되기까지 여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폭력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저항의 역사가 있었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여성=강함 혹은 약함? 을 따지려드는 성급한 분들이 있다면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여기서 그 결론을 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 말은 여성 스스로 강한 자임을 자각하라고 다그치는, 강한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설사 이곳에서 (그런 성급한 사람들을 만족시킬지도 모를) 여성 스스로 강한 자임을 설파한다고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닐까?

여성 스스로 약한 자로서 설정된 위치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함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결국 폭력 피해자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굴레 속에 침잠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아닌, 대상에 머무르기를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닐까? 가령, 버스 안 성추행의 순간, 타인의 침해에 충분히 '공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분명 그것은 타인의 몸에 대한 침해이며 적극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움츠러들어 소극적인 방어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어느새 약자로 섰던 그 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 그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려야 할 자는 내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너무 쉽게 나 자신을 약자로 위치시키는 것이 아닐까? 때면 유효한 것은 아닐테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약한 여성이 아닌 무자비한 폭언을 퍼붓는 무서운 얼굴로 그를 공격할 때, 상대가 당황하여 슬며시 고리를 내리는 몇 번의 경험을 상기해보는다면, 상황 역전시키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분명, 그러한 약함을 내면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여성에 대한 학습된 답론을 자각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작금의 현실에-폭력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자 하는-대한 비판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비판 없이 여성 개인의 상황 대처 능력을 말함은 또 다시 함정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여성주의를 실천해가면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답론 속에서 초점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매 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다. '여성'이 약하기만 한 존재인가? 라는 물음은 그러한 점에서 나에게 새로운 탈출구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준다.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정의 내림을 종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여성에 대한 강한/약한 의 답론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여성을 둘러싼 이러한 허튼 수작들에 대한 철저한 반발이며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침범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She said**

by 오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한다는 요즘, 우리들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물론 장기화된 경기침체나 청년실업 따위가 우리를 특별히 더 고민케 만들고, 특별히 더 괴롭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커졌다고 이제 고민해야 할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생겨난다.

특집팀 식구들은 이번 호 *She said*가 우리들의 마지막 *She said*라는 생각에 우리의 고민과 생활을 공유해보자는 생각에, 서로의 일상을 돌아보는 글을 써보기로 했다.

다들 여러 가지 소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지만, 드러난 글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결국 다들 같은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여기 특집에 글을 쓴 세 여자는 각각 다른 나이와 다른 위치 안에서 자신의 글을 썼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마 누구라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특집을 읽을 *She said*의 독자들이 세 편의 글 속에서 고개를 주억거릴 수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고민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아닐까?

일상사

특 집

이런 세상 #1 #2 :

#1. 섬세함

사람들은 섬세함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역시 아름답다는 느낌이 아닐까 한다. 섬세함이라는 한자 성어가 표현하는 가늘고 흰 손가락을 가진 아름다운 손을 상상할 수도 있겠다. 혹은 예민함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가 무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흔하디 흔한 과민함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예민함,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뜻으로서의 예민한 말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심한 배려 따위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섬세한 것들, 즉 세심한 배려, 풍부한 감수성, 예민함,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들은 매우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또 가져야 한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때로 이에 들어맞지 않는 여성을 보면 옆집 아저씨든 친척 어른이든 부모님이든 선배든 가리지 않고 대개는 웃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신다. 네가 그러고도

여자가, 여자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나, 그만 좀 먹어라, 이제 관리 좀 하지? 아마도 악의는 없을 것이다. 귀여운 여동생, 그리고 사돈처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겠지. 고맙습니다, 라고 꾸벅 인사라도 해 드려야겠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셔도 일상에서 조금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반복되면 어쩔 수 없이 신경증에 시달릴 정도로 섬세해 질 터인데 기력의 낭비는 아닐는지 걱정은 된다. 게다가 저런 식의 지적은 때로 남성에게도 전해진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왜 그 모양이나,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남자라면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내자식이 밥 깨작깨작 먹는 것 바라 등등.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이런 거의 무의식중에 나오는 지적의 기준은 섬세함이 아니라 대범함 쪽에 가깝다. 사소한 보이는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무언가 큰일에 힘을 쏟아야 하며 가늘고 흰 손가락보다는 건장하고 단련된 육체를 요구받고 세심한 배려는 없지만 적절한 곳에서 맏고 굵은 것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

들. 실제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무관하게 때로는 지나가는 말로, 때로는 놀림으로, 때로는 어쩔어도 툭툭 치며 하는 격려로 요구되는 저러한 가치들은 물론 두 경우 다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경우든지 신경 끄고 너나 잘해!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글썽, 그렇지만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범함에 대한 요구보다는 섬세함에 대한 요구이다. 개개인으로서 보면 저것은 성별을 불문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참을 수 없는 침해로 받아들일만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는 개개인이 겪는 침해를 넘는 어떠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대범함에 비해서 저 섬세함이라는 가치는 위에 나열된 이미지가 실제 생활에서의 그것과 맞물려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며 특히 사회성 면에서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 대범함은 그러한 성향을 많이 띠면 필수로 섬세한 다른 이에겐 그 무신경함으로 민폐는 끼칠지언정 본인 한정으로는 사회에 적응도 편하고 일상에서도 윤기가 자르르 흐를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요구

별로 상관없는 두 개의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섬세한 인간이 아니다. 이제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한 사회다, 라는 문구에서 말하는 섬세함은 상품화 가능한 것만이지 끊임없이 강요되고 억압받아서 결국 여성의 삶에 각인되어버린 그런 섬세함은 아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은 대범함이며 섬세함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성품일 따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범함을 요구받고 실제로 대범한 사람들과 대범한 척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무신경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널리고 널린 곳에서 섬세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어느 정도나 하면 내가 처음에 이 글의 제목을 섬세함의 지옥 이라고 붙이고 싶었을 정도다. 일상에서 섬세함은 결코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구질구질하고 무기력하고 아프고 진저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소해서 자신을 일상, 그 사소함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가치이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어서 예들려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그 섬세함이, 내가 스스로를 / 정상/ 이

라고 여길 때의 일상이다.

#2. 무감각

휴식,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면에서의 휴식은 참으로 신비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을 적게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던 지난여름의 말미에 나는 개강이 다가왔음에도 그다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방학 중반에 갑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들을 무작정 다 그만뒀버려서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고 해야 할 일도 거의 없었다. 방학 말미에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나서는 어쩌면 이번 학기는 잘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세상에 태어난 지 20년, 그리고 학생 14년 차, 세상에 적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슬슬 학생 인생에는 적응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들뜨기도 했다. 적응이라니, 나와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단어가 아닌가.

개강 첫 주에 사정을 해대던 것도 이번에는 완화되었고 목적인대로 술도 마시지 않았고 토를 공부도 빡치는 하지만 하기는 하고 있고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았던 균형 잡힌 좋은 날들이 있었다. 무감각한 날들이었다. 느껴지는 것이 없었고 느끼고 싶지도 않았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러한 날들은 사라지고 섬세한 날들만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에 무감각한 날들은 조금 더 붙잡고 싶었는데도 모른다.

개강 2주 후 나의 에너지는 보란 듯이 수직으로 곤두박질쳐버렸다. 나는 에너지 과잉의 상태 또한 견딜 수 없었나 보다. 모든 걸 한 번에 소진해버렸다. 그 전후로 얼마간 먹지도,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날들이 있었다. 매일매일 맥락 없는 눈물이 흐르고 죽고 귀에 죽고 싶다는 단어만 윙윙거리고 단 며칠 만에 내 삶에서 생기가 반 이상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종전과 다름없이 무감각했다. 나는 고통을 호소하는 신체를 마치 타인의 것인



일상을 까발려라?

어떤 사람들은
대범함을 요구받고 실제로 대범한 사람들과
대범한 척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무신경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널리고 널린 곳에서
섬세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양 낮설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다가오는 지독하리만치 섬세한 날들. 그리고 눈을 뜬 순간에만 잠시 이것이 나의 몸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뿐 대체로 나의 감각과 사고는 정지해 있었다.

어제 한 친구는 대학에선 참 신기하게 짝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하었다. 왜일까? 물었더니 그 아이는 자제하는 거겠지, 그런 걸 하면 낙오될 것 같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는 와중에 나온 그 이야기는 그대로 또 다른 많은 이야기 속에 묻혀갔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짝사랑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모든 감정과 감각과 섬세함이 여기서 살아남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의 무감각은 아마도 살아남기 위함일 것이다. YM교수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범죄를 저질러도-성폭력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듣고 있던 여학생들이 웅성거릴 정도가 되어도 나는 비판의 날을 세우지 못한다. 지난 학기까지 그러한 순간을 조금

도 건디지 못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나는 별 괴로움 없이 수업에 들어가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의 수업을 그저 가려듣고 그림을 그리고 가끔 필기도 하고 줄기도 하면서 앉아 있다.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긴 있는데 가끔씩 남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 폭소를 터뜨릴 때가 그렇다. 그저 저 한 축이 빠져 있는 개방주의 논리를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수업의 반 정도는 모두 좋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수업 전체를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질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조개조개 써서 쓰는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붓고 감정도 소모해야 하겠지. 그러니까 진정, 살아남기 위함이다. 이 무감각은.

#3. 나머지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감각한 날들. 햇빛이 좋고 바람이 좋아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보

면 기어이 방해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분들과의 부딪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어서 되고 싶은 날들. 신문을 재미있게 읽고 있고 그 중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고교등급제. 언제나 모든 것은 다 좋지 않게 보여서 알게 될 수록 좋은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나 낙관적. 그리고 뒤돌아보아도 되돌아가고 싶은 지점 따위는 하나도 없으니 결국 현재가 가장 좋은 상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변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니 심지어 진취적. 나는 모든 게 너무 느려서 빠릿빠릿하게 사는 사람들 따라가려면 정말로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다들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 불로불사를 표방하고 있으니 아마도 인생이 즐거운 듯. **She Said**

by 용이

■ 요즘 나의 생활은 참으로 피폐하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끊이지 않는 충돌 속에서 이제 나의 이성이 '해야만 하는 것'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이성과 감성은 사이좋게 손을 잡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합동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비대해진 내 이성이 이제는 자기주장을 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음!! 머릿속은 터져나가고 감성은 잠에 빠졌다. 결국 가장 먼저 나자빠진 것은 내 몸이었던 것 같다. 한달을 토하더니, 너무나 행복하게도 살이 쏙 빠져버린 내 몸은 이제 눈을 뜨고 지내는 18시간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배가 너무 아프다.

이제 내 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할 시간인 듯 하다.

사실 나는 대학에 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연애했던 게 그나마 자랑할 만한 일일까? 초·중·고 시절, 대학에 가겠다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12년을 '학업'에 '전념'한 나는 (무엇?) 그 목표가 성취되어버린 그 순간에 목표를 잃고 퍼져버렸다. 그렇게 드러누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반동거린 것이 벌써 2년하고도 반. 그만 조금씩 움직여 버렸다.

아니 조금씩 볼 보기 싶던 우리 언니는 소위 '대기업'이라는 곳에 취직했다. 올 여름의 일이다. 재주도(짜이나) 연수 갔다 돌아 올 땐 부모님, 할머니, 심지어 고모 선물까지 챙겨서 안겼다.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적금이 들었다고 한다. 앞으로 삼년 열심히 일해서 유학을 떠나시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나보다 더 논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나의 농담을 정당화시켜주던 복학생 선배들은 어찌된 일인지 모두 제 자리를 찾아서 사회로 나갔다. 이제는 사회인이라고 잘 놀아주지도 않는다. 14년 알아오던 친구 녀석은 해외로 날랐고, 동네에서 아직도 나랑 재일로 자주 만나는 친구 녀석은 자격증 실기를 준비 중이다. 이제는 같이 놀 사람도 없고, 무언가 상당히 겁이 나기 시작한다. 나는 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돌아보니 학점은 개판이오, 어학은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경력하나 없이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다. 이 일을 어찌나. 걱정이 태산이군.

한 때는 이렇게 도망도 쳐봤다.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멋진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하아픈 자본주의가 문제가 문제. 쓸데없이 소비욕구를 부추겨서 황금만능주의의 풍토를 만들어 내지.' 이런 허울 좋은 소리로, 그렇지만

어찌됐는가. 나는 그 자본주의 시대에 편승한, 황금만능주의에 쫓겨다니 물들어버린, 어쩔 수 없는 속물인 것을. 그렇다. 나는 속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싶고, 돈만 있다면 MP3를 후다닥 사버리고 싶고, 한달에 두 세 번은 영화도 보고 싶고, 백화점에 한 번 갔다 오면 사고 싶은 옷이 노트 한 페이지에 가득 차게 생기는 그런 인간이다. 우리 집 정도는 되는 집에서 살고 싶고, 멋진 외제차도 사실은 엄청나게 부럽다. 친구들을 만나면 멋지구나한 레스토랑에서 한 톱 소기도 하고 밥이면 아경이 좋은 BAR에서 비싼 술을 마시고 싶기도 하다. 그러니 어찌겠어? 개같이 벌어가지. 비록 정승같이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결론 내놓고 나니 또 걱정이 생겨난다.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돈을 벌어낸단 말인가? 흠... 들리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보면 참으로 답답해진다. 청년 실업이 50만을 육박했다 하는가 하면 고용가에 장기불황에 대기업 청년이 30대 후반이라 하질 않나, 심지어 모 기업에 취직한 우리 언니의 경우를 보면 입사동기 130명 중 여자가 언니까지 돌아간다. 이런이런... 그렇다면, 내가 경장을 200:1인 기업에 입사자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13,000:1의 경쟁률을 풀어야 한다는 건가?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긴 하나 참으로 막막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평생 일을 하고 싶고, 돈도



아르바이트에 찌들고 레포트에 치이고 시험의 압박이
나를 땅바닥의 잠막자처럼 짓누르게 버릴 듯이 내리누르는 것을
아름다스처럼 버티내다 집으로 돌아오면
죽은 듯이 잠이 들어도 다음날 아침에 눈뜨기가 힘이 드는 생활.
그러고도 어디로 흘러들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다시 또 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인생.

많이 벌고 싶고 뭔가 멋진 커리어우먼, 천
의 여인이 되는 것이 꿈인데 도대체 난 어
떻게 해야만 하지? 어디 그뿐인가? 취직하
여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답답해
지는 것은 나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
다. 커피카페이디 이야기는 거의 고전이
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에 어찌고 저찌고...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정말 어
찌 살라! 아, 결론이 안 난다.

이렇게 어지럽고 짜증나는 한 편의 글만
큼, 아니 이보다도 더 끔찍하게 내 머릿속
은 복잡하다. 결국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비겁하게도 '유학'이었
다.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
한 일은 아니었다. 2년 반 동안 죽어라고
고민해도 결론이 나질 않던 나의 미래에 결
론을 내려준 것은 아버지였다. 이번 여름에
아버지와 나의 한판 대결이 있었던 것이다.
몇 번에 걸친 설교와 충고, 질타, 구박, 등
등등. 결국 난 아버지의 뜻대로 유학을 준
비하기로 했다. 누가 들으면 팔자 좋은 소
리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집 형편이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인생의 성
공이 곧 사회적 성공이라 생각하시는 듯한
아버지께서는 안 되는 형편임에도 유학을
고집하시는 게고, 그나마 나의 유학비용을
다 대주시진 못 하실 거다. 아마 비행기에
서 내린 이후로 죽 나는 고학생 혹은 국제
미아 같은 생활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

래도, 그래도, 뭔가 저 높은 어딘가의, 존재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고지를 향하여 나는
결국 한 발을 내딛은 셈이다.

너무나 손쉽게 결정이 되고 나니 그것이
또 문제다. 대체 땀방울 학점은 어찌 채우
며, 영어도 못하는 내가 대학원 시험은 어
떻게 볼 것이며, 학비는 어떻게 낼 것인가.
또, 언제 나갈 것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가.
만약을 위해서라도 유학 이외의 무언가도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유학을
다녀오면 내게 들어간 그 많은 자금들을 어
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사귀어 두어야 하는
가. 등등등등.

이렇게 된 사정이다. 내 머리가 감정을
통제하게 된 사연은... 사실 나는 참 감정
적이고 충동적으로 사는 인간이었다. 무조
건 하고 싶은 건 해야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죽어도 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
었는데, 그래도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두렵
기는 했었는가보다. 이렇게 비겁한 결정으
로 인생의 선로를 돌린 나는 이제 어떤 길
을 걷게 될 지 나조차도 알 수 없다. 그래
서 레포트에 목숨을 걸고 한순간도 마음
편히 놀 수 없는, 뭔가 항상 쫓기고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는, 항상 짜증이 나고 머
릿속이 정리되지 않는 피폐한 생활이 시작

된 듯 하다.

요새는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 대학생
이라 봤자 딱딱하긴 마찬가지다. 한국 땅에
서 태어난 여자들은 거기에 더해 이 험난
한 세상을 조각배를 타고 표류해야 하는 운
명을 타고난 듯 하기도 하다. 아르바이트에
찌들고 레포트에 치이고 시험의 압박이 나
를 땅바닥의 잠막자처럼 짓누르게 버릴 듯이
내리누르는 것을 아름다스처럼 버티내다
집으로 돌아오면 죽은 듯이 잠이 들어도 다
음날 아침에 눈뜨기가 힘이 드는 생활. 그
리고도 어디로 흘러들지 모르는 자신의 살
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다시 또 하루를 살
아야만 하는 인생. 학교 벽 어딘가에서 눈
에 들어온 문정희씨의 <그 많던 여학생들
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샅구가 눈에 들
어온 것은 이런 힘든 생활 때문인지도 모른
다. 얼마 전, 한 TV 드라마에서 '희망고문'
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그래, 사실은 '희망
고문'일 뿐인지도 모른다. 노력하고 고생
하면 무언가 빛나는 미래가 펼쳐질거라 생
각하지만, 사실 고지에는 깃발하나 꽃을 땅
도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빛나는 내일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
지. 아, 어렵다. 종교에 귀의라도 해야하는
건가? **She Said**

by 지형

학교와 사회, 그 중간... 나의 지금과 내일

■ 학교를 휴학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
나면 으레 서로에게 묻는 말이 있다.
"너 요새 뭐하고 지내?" 그러면 나는 항상
"회사 다녀."하고 대답한다. 실상 오며 가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내느냐고, 어떻
게 지내느냐고 묻지만, 그 짧은 시간의 토막 안
에 내 일상을 온전히 구겨 넣어 말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를 다닌다는 한
마디는 어떠한 때 마디 말 보다도 가장 분명
하게 현재 나의 일상을 정의하고 짐작케 하
는 말이다.

남들처럼 이것저것 배우려 다닐 만큼 부지
런하지 않고, 여러 사람 쟁쟁하며 만날 마음
의 여유가 없는 나에게 회사란 사실 같이 사
는 몇 친구를 제외한 일상의 전부이다. 가끔
은 그게 생각과 행동을 가장 많이 제약하고
조건 짓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하지
만, 내 안일한 습관들은 그 답답함을 이내 어
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곤 한다. 그 어
쩔 수 없는 상황 중에는 마주치고 싶지 않지
만 앞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해 가야 할 일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학교만 다닐 때에는 그 안에 독서글거리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그들만의 잣대가 지겨웠
다. 벗어나고 싶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일부
는 떨쳐버리기도 했다. 물론 상당부분은 그
냥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선
배나 후배 친구 녀석들까지도 그들이 원하

든, 원하지 않은 그 편견 안에서 살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깨어나려는 노력은
이내 그 정제된 틀을 찡그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부수는 데는 실패해 버리곤 했다. 어찌
면 나도 아직 그 고루한 틀에서 부분적으로
만 벗어나고 다른 편한 부분에는 안주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항상 이것이 답답했다. 의식은 같
이 하면서 행동은 같이 하지 못하는 것. 그리
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회피하거나 때로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버
리는 것. 그것들이 의식을 같이한다고 믿었
던, 누구 말에 따르자면 '비숙한 동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법한 그 사람들과의 괴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는
흔히들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성폭
력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너무 많
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게 됐
었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는 지금, 그래도 학교가 그나마 성(性)적으
로 평등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
서 말하는 학교의 '평등함'이란 실제로 모든
것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닌, 사회에 비
해서 아직 그 불평등함을 개선해나갈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
다. 학교 울타리 안 구성원의 상당수는 아직

어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에 '올바르지 못한 순수함' 또는 '무지함'을
제부수는 일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열려있는 곳이다. (물론 교수와 교직원들의
성폭력적 언행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와 대
비되는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데 '사회'는 다르다. '성(性)'이 다름
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 개
선 가능성, 발전의 여지 등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또 학교처럼 주변에 많은 여자친
구들이나 총여학생회나 성폭력 상담실 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 직원들이 차별이나
피해를 당하고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
고는 해도 학교처럼 밀착된 곳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 여직원이 있다고 해도 학
교에서 만나는 친구처럼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지기는 쉽지 않으며 일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도 어렵다. 사실 '사회'가 학교보다 더 심한
곳이라는 것, '여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일을
하는 데 있어 훨씬 물이 나쁜 곳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로만 듣는
것,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짐작하는 것과
내가 직접 당하는 것, 겪어야만 하는 것은 달
랐다.

'사회'라는 곳의 인식은 이미 성별 권력관



계와 성차별에 대해 화석화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性)에 대한 편견에 화석화된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뻔하다.

평소에는 굉장히 잔뜩한 상사가 있다. 성격도 트여있고 부하 직원에게도 반말을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 작은 회사의 경우, 직장 내 예의나 규율이라는 것이 엄격하지 않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존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 직장 상사는 커피 심부름 하나 시키는 법이 없다. 셀프 서비스를 요하는 식당에 가도 부하 직원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 컵은 자신이 챙기는 게 습관인 사람이다. 일 때문에 만나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부모성 같이 쓰기를 하고 있는 나를 항상 신경 써서 "이분은 강나서영씨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런 상사를 보면서 꽤나 꼴하고 편찮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그 나이 대 사람들에 비해 여성주의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의식이 트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하 직원을 의미 있는 개인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내가 있는 회사는 좀 다르다 라고 여겼던 대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순간 무너져갔다. 시민운동과 컨설팅 쪽에서 저명하고, 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을 이슈로 많은 활

동을 해왔다는, 우리 회사의 자문위원을 만난 적이 있다. 연세가 예순이 넘어 머리는 반백발이고, 수많은 제자와 후배들이 명절마다 그분의 덕담을 듣기 위해 문지방 뒤편에 찾아온다는, 겉으로 드러난 경력만 보기에 아주 우아하신 분이였다.

그분을 포함한 다른 자문위원과 회사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분은 첫 인사부터 개운치 않은 인상을 남겼다. '강나서영'이라고 새겨진 내 명함을 받아 들고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일장 연설을 통해 '난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 무섭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난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 싫다.'는 말을 조금 돌려서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부모성 같이 쓰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때론지 않고 하는 농담-부모의 성을 같이 썼을 때 다소 부자연스럽거나 그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런 단어가 되는 경우, 그분이 예를 든 것에 따르면 '변' 씨와 '진' 씨를 조합하여 '변진' 등-도 잊지 않았다. 사실이 정도는 너무나 익숙하고 사방팔방에 널려 있는 편견이라서 따로 꼬집어 내어 비판하기가 귀찮을 정도이다.

하지만 식사 내내 계속되는 그 노인의 언어폭력과 다른 어른들의 맞장구는 밥맛을 잃게 하고 심한 체증까지 가져다줬다. 자신이 아는 여성분들을 두고, '이년, 저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가당

치도 않은 농담거리를 만들어 내거나 옆 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는 등 갖가지 추태를 보였다. 그리고 평상시에 노인처럼 막말을 하지 않는 잔뜩해 보였던 상사는 그분의 막말에 맞장구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억지로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듣기 싫은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사이 나와 다른 여직원들은 산소를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그 지긋지긋한 만남을 끝내고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 같이 현기증을 호소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편견덩어리들에게 당당히 브레이크를 걸만한 용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아무리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도 별반 다른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잔뜩해 보이는 그들 역시 습관적으로 여성에게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여성의 능력을 '높이 살만' 하지만 그것은 일부 분야에 제한된 것이라 생각하며 때때로 여성의 색수열리티를 가지고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설사 자신이 직접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성 차별적 발언, 성폭력 등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무마해버릴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년간 해온 직장 선배 여직원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

미래를 내다보며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지금 가능성을 두고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놓고, 내 성별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제약하고 마는 '선택'이라는 이름의 '포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

는 게 최고라고, 일반 기업체 들어가면 몇 년 못 버틴다고 항상 충고한다. 자신들도 내 나이에 때는 꿈도 많고 욕심도 있었지만, 서른 쯤 되면 그게 다 소용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씁쓸한 후기를 전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 무모하다 싶은 포부를 품고 있는 나에게 그런 충고는 정말 치참하게 들린다. 같은 일을 하면서 남자직원에게 비해 절반의 월급을 받아도 단번에 해고되는 게 두려워 불평 한번 하지 못했다는 얘기, 더 오래 일해도 승진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일을 안 쫓아서 결국은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는 얘기, 빨리 시집가는 게 잘하는 일이라는 얘기들, 나보다 겨우 대어섯 살 많은 선배 여직원들은 벌써 자신의 일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젖어 버린 상태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이런 저런 얘기와 경험들 때문에 아직 사회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지도 않은 나조차도 뭔가를 포기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불들려 있다. 내가 졸업하고 노력을 해서 온 좋게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면 나를 치졸한 방법으로 해고할 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선뜻 육아 휴직을 받으려고 할까. 만약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도 무조건 다들 안전하다고 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걸까, 여자 직업으로 선생

이 최고라던 충고를 가볍게 무시한 것을 지금 와서 후회해야 하는 걸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하면 평생 일을 하고 싶다는 내 의지는 몇 년 못 버티고 꺾여버릴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걸까. 천 갈래 만 갈래 즐거움을 쫓아 가는 고민에 혼란은 견딜 줄을 모른다. 네 달 남짓의 인턴 생활을 하는 내내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들어 찬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하나마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다. 여직원이 절대 다수인 회사 내에서 일하는 분위기와 대화는 항상 여직원이 주도했고, 남자 직원은 눈치를 보며 다른 대서는 아무렇게나 할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맡은 여성이 많을수록 임금이나 대우에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뤄갈 수 있었다. 많은 회사에서 여직원들의 수가 많아지고 고위직에 더 많은 여성들이 포진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는 청사진이 조금이나마 보였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단순히 다수의 여성, 혹은 남성화된 여성이 아닌 성별을 이유로 차별과 피해를 재생산하지 않을 더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통과해야 한다. 앞서 진출한 여성이 후배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선택을 권장하여 이끌어주고 끊임없이 사회적 성공의 문을 두드리며 여성들이 늘어난다면, 그 문은 언젠간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나 역시 그 행보에 미려이나 동참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배운 이상을 가지고 어설프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특정한 전로를 선택하기도 전에 예상보다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사실 예전보다 많은 용기를 잃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내 뒤에 오는 다른 누군가도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이르러 나도 모르는 오기가 생긴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미련을 남긴 채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일을 평생 동안 겨우겨우 하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면 당장에 숨이 막힌다.

그래서 일단, 부딪히자. 학교를 마치기 전 맛보고 있는 사회 경험은 나에게 '쓴 약'이 되고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겹겹이 놓여있는 두꺼운 벽을 넘을 준비를 미리 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 순간의 어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에 원치 않는 길을 갔다가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며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지금 가능성을 두고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놓고, 내 성별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제약하고 마는 '선택'이라는 이름의 '포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 **She said**

by 아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이론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에는 집단적인 경험, 공유된 경험의 개념이 있다.” (수잔 D. 윌터스)

얼마 전 한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페미니스트 되기의 어려움은 자기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스스로의 성찰적이지 못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기 대면을 회피하는 자신을 애써 정당화하며 가벼운 수다로 안온한 일상을 유지하려는 스스로에 대해 화가 나기도 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다시 읽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 관계 안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서 있는 기반 자체를 의심하고 취약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행복하기만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자기 대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대면은 명상을 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난다는가 하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며 그것들과 자신이 불화를 일으키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나, 혹은 그 외의 다양한 위치들에 의해 규정되는 나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자기를 다시 써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면은 자기를 소외시킨 권력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위치, 혹은 자신이 지배 권력에 공모한 지점을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니 에르노의 『부끄러움』을 읽는 것은 그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날의 기억, 일기에서조차 쓰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던 기억을 드러내면서 나를 초대한다. (자신과 부모의 출신지적인) 노동계급 동네에서의 삶과 사립학교에서의 삶, 두 세계를 오가던 그녀에게 그 사건은 “사립학교, 그곳의 품위와 완벽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 속에 편입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들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 했던 부분들을 떠올리게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이 정상적인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기준들이 끊임없이 제시될 때, 그 이상화된 삶의 도덕들, 태도들, 매너들은 나의 몸과, 내가 가지고 있던, 편하게 느꼈던 삶의 방식들과 늘 미끄러지며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무엇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 정상적인 기준과 동떨어진다는 것, 그것에 못 미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

때문이다. 정상화하는 기준들, 규범들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실제 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나에게 가해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규범들을 스스로가 내면화하게 만들으로써 나로 하여금 나를 억압하는 체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수잔 보르도의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은 이러한 정상화하는 규범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몸에 대한 규범과 명령들이 여성들 개인에게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분석하면서, 여성들 자신은 지배적 규범에 완전히 미혹된 이도 아니지만, 몸의 이미지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는 여성들의 선택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권력의 작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쟁 역시 단순해질 수 없으며, 이때 각각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입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정치적 감각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보르도는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끊임없이 따라 잡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녀들의 행위자성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모두 문제적이라고 비판한다. 몸에 대한 지금의 지배적 관념들 속에서 그녀들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지배적 관념을 재생산해내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작동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가 가진 문제의식이다.

자기와 대면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에 의해 구성된 주체라는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나의 가장 사적인 삶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재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성찰은 내 삶을 낫설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일상의 정치화는 그러한 과정이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적인 전제들을 문제 삼기 때문에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르도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란 어떤 여자가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이중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혹은 에르노가 부끄러움이 가장 곱직한 것은 부끄러움을 오로지 나만이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때, 자기의 일상과 대면하며 그것을 언어화하고 정치화하는 것이, 다른 여성들과의 공유된 경험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경험이 있게 하는 구조들을 읽어내며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내는 과정이야말로 나를 보다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비록 나를 ‘이전과 같은 곳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해도 말이다. **See said**

by 지은 연세대학교 문학 석사과정

여성학 서평

페미니스트 되기, 자기를 대면하기

《부끄러움》 아니 에르노 / 이재룡 옮김, 열림원 펴냄, 2000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수잔 보르도 / 박오복 옮김, 또 하나의 문화, 2003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바람이 제법 매섭다. 첫 칼럼을 쓸 때의 들뜬 마음과 지금의 차분한 마음도 많이 다르지만, 내 삶도 많이 변했다. 그 때 나는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잘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넘쳐있었고, 그곳을 떠난 지금은 정리되지 않은 오만가지 감정이 때때로 꿈에서도 나를 괴롭힌다. 그래도, 다행히, 나를 지탱하고 있던 두 흐름, 여성주의와 '문화'는 여전히 내 삶에 흐르고 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심하게 앓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의 어운 같기도 하고, 팔뚝질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루 종일 가슴이 뛰었다. 의사들도 병명을 모르고 '신경성 일거다' '스트레스 탓 일거다'는 말만 했다. 언제부터 쌓인 것인지, 무엇 때문에 쌓인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픈 덕분에 쉬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내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말고, 돈, 부모, 나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여성주의 문화 기획도 하고 싶고, 연출 공부도 해보고 싶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춤이다. 춤출 때 나는 가장 즐겁고, 여성주의 문화 기획도 하고 싶고, 연출 공부도 해보고 싶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춤이다. 춤출 때 나는 가장 즐겁고, 살아있는 것 같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장 넘치는 분야도 춤이다. 그런 춤을, 일한다는 핑계로 너무 오래 쉬었다. 춤을 안 취서 몸도 아픈 게 아니었을까? 8개월만이었나 다시 춤을 배우려 갔던 날, 알아 누워버렸다. 그 때는 하루 학원을 다녀 오면 다음날은 아무 일도 안하고 쉴 수 밖에 없는, 아직은 체력이 바닥인 상태였다. 다시 내 삶에 춤을 들일 수 있어서 좋으면서도, 그 동안 못했던 만큼 더 많이 배우고 춤추고 싶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슬프기도 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중 일 연습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럴 체력도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앞으로는 한동안은 다른 방법을 하면서 시간을 조개

돌고 돌아,
다시, 춤.

돌고 돌아 다시 춤

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만 조금해졌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레슨을 받고 내가 심리학 시간에 줄고 있을 때에도 춤을 배웠을, 소위 전공자들을 보면 기가 죽고 자신감도 꺾였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선생님께서 가슴을 툭툭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가라고, 그리고 특히, 나는 기운이 없고 근력이 부족하니까 우선 밥부터 잘 챙겨먹고 조금씩 근력을 키워나가라고.

늘 조금한 마음이 문제다. 지금 당장 뭘 이루어야 될 것만 같고,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은 나 스스로를 갇아먹고, 내 삶도 갇아먹는데 말이다. 나 역시 지금 당장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 지금 당장 선생님만큼 하고 싶은 욕심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었다.



언젠가는 나의 춤을 출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의 춤을 출 수 있는 그 날을 느긋하게 기다려 보고자 한다. 다른 일에 시간을 덜 빼앗기고 하루 종일 춤에만 마음을 줄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듬어진 훨씬 더 마음을 올리는 퍼포먼스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색다른 춤보다는 다른 더 멋진 춤을 가르치는, 그리고 춤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워서 마음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 날.

비슷한 꿈을 꾸는 아들에게

지금 이순간도 어딘가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공연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무슨 무슨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일단은 부딪혀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 돈을 내고 여기 다니는 게 좋을까, 돈도 얼마 못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게 나을까 너무 재고 고민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기 쉽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은 이 길로 먼저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인 듯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훨씬 낫다! 소위 배고픈 일, 3-D 직종이라는 일을 꿈꾸고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본다. 젊어서 돈 몇 푼 더 벌어서 뭐 하겠냐고,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는 돈 몇 푼 더 버는 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도통 모르던 때보다는, 힘든 길이지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게 어디냐고, 언젠가 또 이 길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닌가 보다 싶을 때가 오더라도, 그래도 뭐 하나에 미쳐서 살았으니 조금은 행복하지 않겠냐고. **See Said**



by 호름

여성주의와 문화는 어떤 사이일까.
너는 이 둘을 내 삶에서 어떻게 풀어갈까.
어전히 고민 중.



여성에 대한 남성 사회의 공포와 판타지

〈스텝포드 와이프〉

최 근 이경실, 김미화, 최진실 등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이 아내 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하는(청구한) 사건이 벌어지자, '잘 나가는 여자'에게 치어 사는 불쌍한 남자' (가 그런 것도 이해가 된다)라는 식의 소위 '기죽은' 남편 동정론이 고개를 내밀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너무 잘나면 안 된다는 케케묵은 이야기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영화 〈스텝포드 와이프〉는 바로 이런 남성들의 공포에 관한 이야기다. 영화는 직접적으로는 자신보다 잘 난 아내를 둔 남편들, 크게는 여성들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남성 사회의 사회적 공포와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다루고 있다.

※ 스포일러 경고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음으로써
영화 내용을 미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텝포드 와이프〉는 1975년에 제작된 동명의 영화를 30년 만에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섬뜩한 공포 영화였

던 이 영화는 30년의 시간차만큼의 사회적 변화를 새롭게 담아내겠다는 나름의 인식으로 블랙코미디라는 장르로 돌아왔지만 그만큼 블랙코미디가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풍자에 공포를 가미할 수 있는 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느낌이다.

성공한 여자들에 대한 남편들의 공포

조안나(니콜 키드먼)는 잘 나가는 방송사 사장에서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고 폐닉 상태에 빠진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 월터는 방송사 부사장직을 그만두고 가족들에게 스텝포드로 이사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스텝포드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승무원 처럼 웃으며 인형 같은 말만 내뱉고, 그 바비 인형같은 여자들의 집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완벽' 하다. 깨끗한 집안을 유지하고, 언제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성적 서비스에 돈까지 뽐아내는 '완벽한 아내', 그 '완벽함'은 공포를 자아낸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된 스텝포드에서 남자들의 공간인 men's association club은 웬지 모를 음모와 의심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다. 이 곳은 남성들의 욕망의 집합소이

자 은밀하게 여성을 '개조'할 계획을 꾸미는 장소다. 마이크가 보여주는 '스텝포드 와이프' 광고는 여성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남성 사회의 공포와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남성 클럽과 마을에 별 거부감 없이 익숙해지는 월터에 비해 검은 수트를 입은 조안나는 파스텔 톤의 하늘거리는 드레스와 금발을 한 스텝포드 와이프들 사이에서 쉬 어울리지 못한다. 월터는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완벽한 아내'를 조종하는 스텝포드 남자들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힘 빠지는 마무리, 허술한 코미디로 끝나버린 스텝포드 와이프

후반으로 가면서 영화는 스텝포드의 비밀에 점점 다가가지만, 그 비밀의 중심에서 밝혀지는 것은 '좀 다른 맥락'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초반부터 추측 가능한 스텝포드의 비밀보다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영화는 실망스러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조안나가 스텝포드 와이프들의 '놀라운' 공통점을 알게 되는 순간 영화는 사건 해결의 열쇠를 '혼자 남은' 조안나가 아닌 월터에게 넘겨주는 치명적 실수를 범한다. 조안나가 남자들의 음모를 다 알고 그 운명에 체념하는 장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이후의 반전을 위한 계획된 장면이라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결국 '아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남편 월터의 '깨달음'이 조안나와 다른 모든 아내들을 구해낸다는 결말은 이 영화의 힘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치명타다. (그 사이 조안나와 월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초반에 보여준 스텝포드 와이프들의 인형 같은 몸놀림과 손떨 곳 하나 없는 집안도 공포보다는 하나의 볼거리에



그쳤다는 느낌이다. 남성들의 욕망과 '완벽한 아내'의 덕목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도 가벼운 수준에서 끝나고 만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마이크의 아내 클레어였으며 마이크가 그녀가 만든 로봇이었다는 또 한번의 반전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성공한 뇌 과학자였던 그녀가 남편과 젊은 여조교의 관계를 알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설정은 영화가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설마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겠지?)

'잘 나가는' 여자와 '기죽은' 남자, 그 때문에 대화 없이 유지되는 허울뿐인 가정(이 가정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뒤로 하더라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 잘 듣는 바비 인형 아내가 아니듯, 또한 남편의 '배려'나 가정을 '지키는' 궁여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인형을 원하는 남성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영화가 조안나를 돌려보낸 곳은 남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좋은 아내 자리에서 그리 벗어난 듯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는 30년이 지난 지금의 바뀐 시대를 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말이다. **She Said**

공감

면접보러 가는 날



장애여성공감에서 간행하는 '공감' 창조

by 단단
98학번으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고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티에서 활동한 김이다영입니다.
운 좋게 여성주의를 만나 오랜 꿈이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만화가 되기의 목표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반가워요.



졸업한 여성주의자 세상 살 기
나는 졸업 후에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 밖 세상은 여성주의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참 피곤한 곳으로 보였다. 그래서 적어도 저 바깥보다는 안전한 학교 안에 한동안 더 머무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도 있었고 문득 깨달은 바도 있어 사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여성주의자의 취업

어떤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어학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 가며 취업을 준비한다지. 아니, 어떤 대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런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미리 준비할 능력도 안 되었고 사실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나는 졸업 후에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 밖 세상은 여성주의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참 피곤한 곳으로 보였다. 그래서 적어도 저 바깥보다는 안전한 학교 안에 한동안 더 머무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도 있었고 문득 깨달은 바도 있어 사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가 4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무렵이었다.

나의 고민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력서를 써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A4 용지로 겨우 한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력서를 쓰다 보면 자신이 어떤 대학 생활을 보냈는지 한눈에 파악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는 내 대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던 여성주의 활동을 이력서에 쓸 수가 없었다. "기업은 페미니스트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쓰지 말든가 아니면 알아챌 수 있도록 적당히 돌려서 표현해." 내게 이렇게 충고해 준 사람은 다른 아님 1년 먼저 졸업해서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 여성주의자였다. 나는 고민 끝에 '역학생 자치 도서관 활동'을 '학생 자치 도서관 활동'으로 고쳐 썼고 내가 참여했던 여성주의 행사들은 아예 써 넣지도 않았다. 대신 그 자리는 그다지 열심히 활동하지도 않았던 학회 이름과 수업 과제 때문에

했던 시답잖은 프로젝트들이 그럴듯한 표현으로 치장되어 채워 넣어졌다.

고민은 면접에서도 이어졌다. "학생 자치 도서관이라는 게 뭐하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며 두루뭉술하게 설명해야 했다. "지금 이 부서에는 여자 사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일할 수 있겠어요?"라는 물음에 평소 울컥하고 흥분하기 잘하는 성질을 억누르고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사근사근 대답해야 했다. 외국계 기업의 면접에서는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라는 질문에 "maybe after 10 or 20 years."라고 대답했다가 면접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고 "I..... I'm not sure."이라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출판사는 내가 유일하게 이력서에 여성주의 활동을 써 넣었던 곳이다. 이 출판사가 예전에 낸 책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여성주의 관련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빼먹었던 여성주의 활동을 꼼꼼히 적었는데 운 좋게도 이곳에 몸담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나의 여성주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던 것은 아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지.

출판사라는 특성 때문에 이 회사는 여자가 많고(연봉이 적으니까) 분위기가 자유로운(문화 산업이니까) 편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 때 상상했던 것만큼 피곤하지는 않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담배를 숨어서 피지 않아도 되고 남자 동료들 먼저 승진하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 회사 사람들에게 "저 페미니스트예요!"라고 부르짖은 적은 없지만 "여성주의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다닐 때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라고 수줍게 커밍아웃도 했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즐거움을 느낄 때는 원고를 읽다가 나의 여성주의적 세계관에 매우 거슬리는 부분을 발견하고 슬쩍 고쳐 놓거나 작가를 잘 구슬려서 아예 빼 버릴 때이다. 원고에서 반말로 되어 있는 남편의 말투를 존댓말로 고치는 사소한 것에서도(정말 간단하다. 문장 끝에 '요'만 추가하면 된다.) '와, 부부가 서로 존댓말 쓰니까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 하고 혼자서 조용히 뿌듯해 한다. 물론 반대로 원고의 진행상 고치는 데도 한계가 있거나 작가가 고집을 부려서 화가 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즐거울 때가 더 많다.

하지만 문득문득 불안함을 느낀다. 그것은 내 자신이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대학을 떠난 지 약 일 년 반. 그사이 나는 조금씩 조금씩 덜 예민해져 왔다. 확실히 요즘의 나는 예전만큼 분노하지 않는다. 나의 분노가 달은 것일까? 내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은 사회 자체보다도 내 자신의 변한 모습이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친구들에게 '내 꿈은 소녀들을 위한 여성주의 책과 소년들을 위한 뷰티가이드북을 만드는 거야.'라고 농담을 하곤 한다. 소년용 뷰티가이드북은 정말로 농담이지만(나 말고 누가 꼭 만들어 줬으면 실진 하다) 여성주의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것은 나의 막연한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여성주의를 녹슬지 않게 해야지. 부지런히 기름칠을 해 줘야겠다. 한평생 그렇게 기름칠을 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She Said**

by 썬 2003년 인문학부 졸업



성매매 없는 세상... 이제 시작!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성매매에 대해서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성매매가 이슈로 다루어지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 성매매 집결지에서 대규모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었던가.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차라리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존재하는 하되 나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그런 '소수' 여자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는가. 언제부터 누가 그렇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었던가.

너도나도 주장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일자리를 빼앗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고, 재향대책이 실효성이 있냐고,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냐고, 걱정을 하고 분노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갑자기 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 나타났느냐는 것 때문이다. 이제까지 '돈 쉽게 벌려고' '몸 파는 여자'라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가했던 이가 누구인가. 그들이 성매매를 하게끔 만든 것은,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유지시켜주었던 것은 누구인가.

이제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법안의 통과에 갑자기 왜 '격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 격분의 말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증가한다.

이 오래된 '거짓말'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와 성폭력은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과 '일반 여성'을 구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논리이다. 성매매와 성폭력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돈을 지불했으면 정당화되는가? 유치한 비교로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주면 그것이 폭력이 아닌 것이 되는가? 구매자에게 성매매는 즐거운 섹시이며, 부당한 자기애의 확인일지 모르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성매매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폭력이 감소하는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게다가 성매매가 안전한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성매매가 안전한 곳에서 성폭력 역시 빈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디서든 돈을 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있는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민감할 수 있을까.

2. 성매매를 금지하면 더욱 음성화된다.

이 역시 안타까운 반응이다.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주책가로 확산되어 더욱 음성화되니 공청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이야기이다. 현재 대학 기숙사까지 퍼져버린 성매매가 특별법 시행 때문이었는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학 기숙사와 주택가까지 성매매가 퍼져있지 않았는가. 그 현실을 지금 모르는 척 모든 문제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우길 것인가. 오히려 성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매매를 묵인하는 사회적인 문화와 구조가 더 널리 깊숙이 성매매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한 성매매가 집결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매매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는 떨어진 곳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가? 있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 모여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가?

3. 성매매 금지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매일 보도되는 신문 기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성매매 업소를 비롯한 주변의 상권, 은행, 그리고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매매 금지로 인하여 외국인 '접대' 또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성매매를 둘러싼 이중 삼중의 사회적인 고려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 성매매가 있어야만 성사되는 외국 기업과의 계약, 성매매 없이는 불가능한 관광산업, 성매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많은 산업들. 이 것들이 성매매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산업을 통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이란 또 얼마나 문제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4. 기타

유교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혼전 성관계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일부부터 남성의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말까지 우리 사회를 떠도는 많은 말들이 있다. 언제부터 남성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했었던가. 여성은 감정에 치우쳐있고, 남성은 이성적이어서 공적인 일에 더 알맞다고 천명해오지 않았던가. 또한 여성의 성욕은 남성과 다른가? 결국 남성의 성욕 해결을 위해서 성매매 금지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대책이 없으니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더 체계적이고 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대책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 여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자신 있게 성매매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성매매는 범죄이다. '성관계'에 '돈'이 오가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이 오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범죄이다. 성매매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폭력은 돈이 지불되었다고 합법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반대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여성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의자들을 대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 특별법을 여성들 간의 갈등으로 보이도록 조장하고, 물아가면서 뒤에서 팔방끼고 구경하고 있는 당신, 그리고 성매매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사이의 갈등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은 여성에게 성매매, 성 착취, 성폭력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작'일 뿐이다. **She Said**

by 여량 명량한 페미니스트

"그만 녀석은 앞니 한두 개 정도는 부러뜨려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지만 결국엔 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손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 속으로 계산을 하거든."

"손해?"

"응, 가령 앞으로 이 학교를 몇 년이나 다녀야 되는데 있기 불편해질 거라든지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는 거라든지"

"하지만 난 그러면 다른 한 쪽의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어물쩍 넘기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일."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초요시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초요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

"- 그래, 그런 진짜 무서운 일이야. 난 알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나/ 가 될지 -."

- (Papa told me), Nanae Haruno

조용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 지루하도록 조용하게, 흔한 무용담도 작은 위반도 없이 매우 조용하고 곤란한 웃음을 지으며 살았다고 생각한다. 알아도 말하지 않고 몰라도 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곤란하게 웃고 좋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언제부터인가는 혼자 있어도 다른 이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나는 나와 면식만 있는 대부분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의 대명사로 불렸고 고맙게도 몇몇 학부모들은 나에게 어찌든 저렇게 참할까 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내가 가장 싫어했던 선생님은 내게 인생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의 곤란한 웃음을 보며, 실제로 내가 참해서, 혹은 착해서, 아니면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유해서 조용히 지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할 때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의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꼭 표현하라고 하면 보통 위에 열거된 단어들의 반대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 일반인/ 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나는 각종 위장 질환을 앓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우 조용한 학생이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한 노력이 도리어 나를 눈에 띄게 만들 정도로 조용한 학생이었다.

그 사이의 간극을 메워 준 것은 무엇보다 그 곤란한 웃음이었다. 나는 모든 불만스럽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곤란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났다. 나는 계산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내가 그 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로만 총총하게 짜여진 듯한 그 고등학교라는 세계, 그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전략이 그저 곤란하게 웃으며 조용히 살기였다.



재고, 재고, 또 재보기

아무리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대개의 경우 침묵했다. 말하는 순간 우선 언어폭력에 노출될 것이었고 다음에는 사적인 채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공적인 채벌이 이루어지리라. 후에는 낙인이 찍혀 버리겠지. 더 이상 눈에 띄지만 않으면 별 탈 없는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느낀 그 억압의 구조망들을 다른 이들은 존재한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혹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그들은 계산이 필요 없거나, 어쨌든 나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눈앞의 부조리를 참으며 내가 스스로에게 되던 것은 수능이 끝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대학에 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테니 제발 그 때까지는 이런 자신에게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고3도 후반에 이르러 이제 정말로 몇 달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 되자 내 책상에는 "세 달만 행복하게 살자"라는 종이가 붙었다. 현실과 타협하자는 뜻이었다. 책상에는 그토록 경멸하던 종류의 책인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가 꽂혔다. 내가 하는 생각들은 다 사소한 것이니 그만 건 접고 공부나 하라는 뜻이었다.

바라던 대로 나는 무사히 대학에 들어왔다. 어떤 방향이든 달라고 싶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세 가지 방향을 놓고 어느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모습일까 고민하기는 했지만-생긴 대로 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남들이 그토록 말했듯이 바뀌려고 노력이라도 해 봐야 하는 건지- 끝내,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아, 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생긴 대로 살자, 말하자면 그 전까지의 나를 긍정하고 나를 억압했던 무수한 구조들에 대해서 뭘 수 있는 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며 또한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물론 "왜 너만 그래? 내가 그렇게 특별하니?" 라는 메아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멸하는 데에도 익숙해져 있던 내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여성주의 관련 서적들의 영향이 컸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분노하기도 했고 시원하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으나 적어도 "왜 너만 그래?" 라는 공격에서는 잠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느끼지 않는 것을 느낀다는 것, 혹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고 빛나는 경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별함은 배제와 같은 의미가 되었고 나는 몇 년 간 계속 그것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리쳐 봐야 친구조차, 가족조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많이 계산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계산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간과되고 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 공감해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일반인/의 범주에서 내치진 내가 억압에 반발하고 개선책과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내 의식은 그저 조용하게 목 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공격했다. 그런 시기에 무엇보다 "너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비정상/이라서가 아니다." 라고 말해 준 그 책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때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이제는 나를 억압하는 그물망이 그렇게 총총하게 나를 옥죄어 오지 않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상황 앞에서 곤란하게 웃고 있었다. 피하고 숙이고 침묵하고 웃었다.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바로 그, 계산하는 습관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많이 계산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계산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간과되고 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던 자신, 불만을 가졌던 자신, 비판적이었던 자신, 항의하고 싶었던 자신, 세계를 좀 더 섬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자신은 으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고 계산 조건에서 간과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도 쉽게 변질되어 있다. 눈앞의 이익을 좇다보면 모르는 사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구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다. 그토록 혐오하던 것들과 함께, 그리고 삶은 계란을 다시 낳게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전의 나로 되돌아가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을 멈출 수 있다면 적어도 변수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 같다. **See Said**

by 몽이 갈래머리를 자주 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서 표현을 한 서적 종이 냄새, 케이크, 빵을 좋아한 글쓰기와 만화는 이미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을 글은 무엇보다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알기

음, 고정 코너의 마지막 회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근거리는 일이지만, 무엇을 끝내는 일 역시 참으로 두근거리는 일이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달아 글을 써왔던 코너를 접는 순간이라니,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좀 앞을만한 글을 써볼 수 있을까 싶어 바둥바둥거렸던 첫회, 충신폭집으로 온갖 신문들 싸잡아 푼물땀던 2회, 한겨레 21의 <시사 년센스>에 상반기 위스트 상을 드렸던(물론 진짜 '상패'를 증정하지는 않았지만) 3회, 학교 다니는 동안 한번은 꼭 뭐라고 해주고 싶었던 춘추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로 혼자 뿌듯해했던(뭐냐...-) 4화를 거쳐, 어느덧 마지막 회에 도달한 것이다. 하아.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여전히 신문을 펴면, tv를 틀면, 잠자를 뒤적거리다보면,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푸욱 나온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야말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우리시대의 필독서라는 칭찬은 여전히 자자하다. 출산을 저하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여성들을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젖은 이기주의자로 보는 동시에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라고 몰아붙이는 등 모성 신화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웬만한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은 좀 괜찮은 상대역과 함께 극을 이끈다 싶으면 왕자님을 기다리는 신데렐라라고 욕을 먹고 평강공주에 기생하는 온달씨

는 '신선하고 새로운 걸?'이라며 칭찬받는다. 성적 소수자는 '소수자'가 아닌 '이상한 애들', '비정상인'이다. 이성애 중심주의와 결혼중심주의, 연애중심주의, 외모중심주의도 여전히 매춘, 윤락, 원조조제, 정신대, 미망인, 동성연애, 호모 등등 감각 기관에 의해 발견될 때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리시려고 그런단...-'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용어 사용도 여전히 있다. 으음.

특히나 요즘 극으로 치달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아닌 밤중에 달님을 보며 달님, 이 기사 쓴 기자들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물론 내가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다가는 수십 명 기자들의 무릎 꿇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물론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는 이 법으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 성매매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는 긍정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단속을 넘어 피해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는 추가대안까지 함께 제시한 기사들도 없지는 않았다(2004년 9월 17일 서울신문 기사).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객관을 가장해' 딱하니 써놓은 기사들, 르포도 아닌 것이 르포인 척 하면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를 소설처럼 써제낀 기사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어떡하겠는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전에 조선일보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요런 소리도 하더라.

<한 호객꾼은 '주변 친구들이 뺨끼 그만두고 사골 내려갈 생각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때 옆을 지나던 다른 '뺨끼'가 무전기기를 꺼내 들었다. '순찰 없어요. 보이면 연락할게요'라며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눴다. 그는 '손님 집이면 수갑 채워 끌려간다는데... 그래도 며칠 하다 그만두겠조?'라며 '다음달 말쯤 놀러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성매매방지법으로 '뺨끼' 그만두고 사골 내려가게 될 호객꾼에 대한 연민과 함께 '청년실업자가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왜 그들을 실업자로 만드는가!'라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훌륭한 기사라 아니할 수 없겠다(헉). K기자+J기자는 피해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대안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의 여부보다 직업을 잃게 될 뺨끼들이 더 걱정스러워 보이는가? 이런 경우를 네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말하지, '대략난감'.

그런가 하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에 동아일보에 실린 한 기사는 요런 제목이더라.

<유형업소는 지금 '특별교육중'... 성매매 특별단속 이후> 와,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선불금 대신 일당 지급, 룸마다 비상벨 설치, 호텔 대신 가정집 대여, 인터넷 성매매 모색...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23일 시행되자 룸살롱 등 전국의 유형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문단으로 시작한 이 기사는 이 지역의 룸살롱에서는 어떤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저 지역의 룸살롱은 어떤지, 그 지역의 룸살롱은 어떤지...를 조목조목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동아일보 기사DB

【사태】유형업소는 지금 '특별교육중'... 성매매 특별단속 이후

· 발발할 연방-연방... · 거고자 한방이 유전된 다지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 유전된...

부분에는 '이러한 편법 사용이 발각되었을 경우 어떤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라던가, '이러이러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는 등의 이야기를 좀 써줘야 구색이 맞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기사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다. 생각 없으신 분들이 읽고 나서 모방하습시다 딱 좋게 그저 온갖 편법들을 나열할 뿐이다. 예러이 J기자+K기자(물론 아까의 K기자+J기자와 당연히 다른 분들), 도저히 존댓말 못쓰겠다. 그러고 싶나 응?

(물론 이 외에도 난감한 기사들은 하나하나 다 나열하다보면 책 한권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많지만... 압박에 시달리는 졸업학기에 저 기사를 하나하나 다 들춰보고 있다가는 암울의 바다에 풍덩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 안 봐도 DVD이니 패스)

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먹고 살 길 찾기도 바쁜 요즘의 세상, 안 그래도 신경 쓰이고 사람 고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런 기사들까지 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팽개 돌고 혈압이 상승하며 얼굴로 혈액이 몰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당연지사.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하다. 사실이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나름대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내 맘이 편해진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내가 귀 막고 눈 가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자들은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듣기 싫은 얘기들을 입에서 뱉어내고 손으로 꼬치대 놓는다. 이거, 아무리 눈 가리고 귀 막아봐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 꼬깃꼬깃 구기거나 경쾌하게 찢어서 쓰레기통 안에 쑥 집어넣어버릴 '나의 손'이 필요하고, 네가 하는 얘기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말도 안 되고 이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웃기지도 않는다고 무안 줄 수 있는 '나의 언어'가 필요하고, 틀리고 말도 안 되고 짜증나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에 대해서 함께 투덜대며 육해줄 수 있는 '나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화가 나는 당신, 스트레스 받는 당신, 어이없는 당신, 결국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무얼거려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 쿨하게 한발짝 물러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도 쿨하지 않다. '이거 정말 말도 안돼!' 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이다. 어떤 쓰레기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더럽히려고 하면 당당하게 '이 쓰레기야!' 라고 말해줘 버리자. 나만 어떻게 모난 생각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소심해질 필요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저널 일다(www.ildaro.com)와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www.unninet.co.kr)를 추천해드린다.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SHE SAID를 읽으며 잠시 가쁜 숨을 진정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She said**

하이픈 사회주의,
하이픈 민족주의도
이제 좀 생겨라



학생의 선거 시즌이다. 4년제 선거를 보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 묘함이 있다. 당당한 자신감으로 나서서 발언하는 남자 후보들. 그들은 늘 같은 말을 한다. 민족이건 노동이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 있게, 비장하게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한다. 여성 문제가 나오면, 그 지점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열심히 고민해 나가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들에게 궁금한 것 두 가지. 물론 학생회장이 반드시 가장 깊은 수준의 고민과 결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문제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선거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여성 문제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 여성 '동지' 가 있을텐데, 그 사람은 자신보다 민족 혹은 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녀가 아닌 그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럴 수 있었는지.

50여 년 전, 보짜르는 남성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여타 운동들과는 달리, 여성 운동은 노동 운동, 민족주의와 같은 '거대 이념'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여성주의는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고 비판을 받거나, '수구 세력에 이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곤 한다. 반면 기존 진보 세력들이 드러내는 마초이즘, 성차별적 문화는 그런 '거대 이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거나 숨겨지곤 한다.

비슷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하이픈 페미니즘' 이라는 이해 방식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등과 같이 어떤 거대 담론에 의해 규정되는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여성 운동이 여타 사회 운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고 그 이론을 또한 다른 담론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해 혹은 오해, 즉 여성운동은 다른 운동에 종속되어 이루어진다는 이해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갖는다. 우선, 그러한 분류는 여성의 경험과 사고를 담은 언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주의를 설명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분류해 낼 수 있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를 분류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이후 급증한 학내 여성주의자들은 소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그녀들은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급 투쟁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으며,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개념을 차용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보다 큰 문제는, 그러한 비난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진보 세력들의 오만을 정당화한다는 것에 있다. 어떤 사람도 단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지는 않으며, 단 하나의 권력 관계에 놓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픈 페미니즘들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이다. 직장 여성 노동자와 여성 농민의 현실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내용과 방식의 여성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기존의 '진보'라는 담론들이 그러한 다양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만은 아니다. 제3세계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 한국인/외국인,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노동자라는 수많은 정체성들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 한국에서의 '노동자'라는 정체성이라면, 노동 운동 역시 그러한 수많은 정체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와 관계를 가지고 다양해져야 한다. 즉, 하이픈 페미니즘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노동 운동이 문제인 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일본군 성노예



하이픈 사회주의,

하이픈 민족주의도

이제 좀 생겨라



어떤 사람도 단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지는 않으며, 단 하나의 권력 관계에 놓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픈 페미니즘들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이다. 직장 여성 노동자와 여성 농민의 현실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내용과 방식의 여성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기존의 '진보'라는 담론들이 그러한 다양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발언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수많은 소위 네티즌들의 비난은 간단히 말해, '그것이 일본의 잘못이 아닌 말인가'라는 요지였다. '그분들은 성매매 여성들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 가해자가 누구인가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즉 성노예 피해 당사자들이 분노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가해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고, 그래야 한다'라는 필사적인 부르짖음에 지나지 않는다.(그렇다고 이영훈 교수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회 투쟁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한 가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간혹 '사회적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 안에서의 고백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은 고백은 커녕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성폭력과 같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다루는 여성주의적 문제제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것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격하

시킴으로써 그 비난을 피해가곤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남성 권력에 의한 피해자는 수없이 많은데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없거나 미국에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면은 오히려 진보적인 운동가들에게서 더욱 잘 나타난다. 자신이 받고 있는 억압과 믿는 이상에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농민, 노동자, 이라크 민중 등과 친밀해지거나 동일시함으로써 그 운동에 대한 의지와 동기를 부여한다. 졸업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된다'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 같은 농민' 등등의 자기암시적 수단을 통해 그 집단의 경험과 의식에 근접해 보려는 것이다. 어떤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데 있어 권력적으로 아래에 있는 집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여성 문제에 들어서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해진다. 피억압 집단과 동일시하기엔 권력 집단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다. 권력 집단이, 혹은 가해자가 한국 남성이라는 집단이라면, 같은 운동을 하는 선행라면, 자기 자신이라면, 경험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권력 집단에 소속되어 왔고, 따라서 그것이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억압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 문제는 자신

어떤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데 있어 권력적으로 아래에 있는 집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여성 문제에 들어서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해진다. 피억압 집단과 동일시하기엔 권력 집단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다.



하이픈 사회주의,

하이픈 민족주의도

이제 좀 생겨라



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곤 한다. 따라서 여성 문제에 있어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만에 하나 알 것 같다면 그 원인을 전적으로 사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가해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잘못된 것은 사회 혹은 그 개인이고 자신에게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권력을 가진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따라서 투쟁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주요 의제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도 선거는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적 주장들을 한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여성주의 이야기도 꺼내곤 한다. 잘 들어보자. 그동안 해오던 얘기에 여성주의가 단지 '첨가'된 것은 아닌가. 민족 얘기에 한국 여성이라는 말이 덧붙여지거나, 노동자 얘기에 여성 노동자 얘기가 덧붙여지는 것. '한국의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 한참 뒤에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이 붙는 것은 그 말이 덧붙여지기 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노동'에서 '여성 노동'을 분리시키고, 따라서 '여성 노동'을 제외한 '노동'의 영역은 여성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온전히 그대로의 순수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농활에서 여성주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며, 운동권 내 성폭력은 물어뜯아 할 것이 되고, 북한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영역은 여성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하이픈 민족주의', '하이픈 사회주의'를 기대하는 건 여전히 아직도 무리인가. **See said**

by 이스트
어쩌다 이 판으로 굴러 들어와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사고 정지된 소심하고 편협하고 게으른 남자아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자보 붙이기와 편집 똑같이 따라하기 이간질